

ISO/TC 112 (Vacuum Technology) 국제 규격 관련 현황 및 국내외 표준화 규격 제정/개정안 고찰

임중연, 신용현, 홍승수, 박종도*, 이광호**, 정광화

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진공기술센터, *포항가속기연구소, **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본재과

ISO 국제기구의 국내 대표기관으로 기술표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, 그 중 TC 112(진공기술) 분과의 국내 간사기관으로 그림 1에서처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. 현재 TC 112 진공기술 분과의 국제규격은 총 13개에 국한되고 있으며, 주된 참여 주체로는 P-member, O-member 국가를 포함하여 총 2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.

2003년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TC 112 국제 분과 모임에서는 기존의 3개의 working 그룹이 해체되고 TC 112 분과 자체에서 5개의 신규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어 새로운 규격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. 또한 2005년 12월 5~6일 우리나라에서 열릴 계획인 TC 112 국제모임에서 새로운 규격의 제정 및 개정 계획을 일본 및 우리나라의 대표자가 제안할 예정으로 있다.

이러한 국제 활동을 통한 국내의 진공기술의 규격 표준화는 관련 산업체의 향후 추진 방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, 또한 급변하는 첨단 기술의 발달에 따르는 진공기술의 표준화의 중요성 및 다변화의 필요성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.

ISO/TC 112 규격의 국내외 관련 현황 및 우리나라의 국제 규격의 제안 현황 등에 따르는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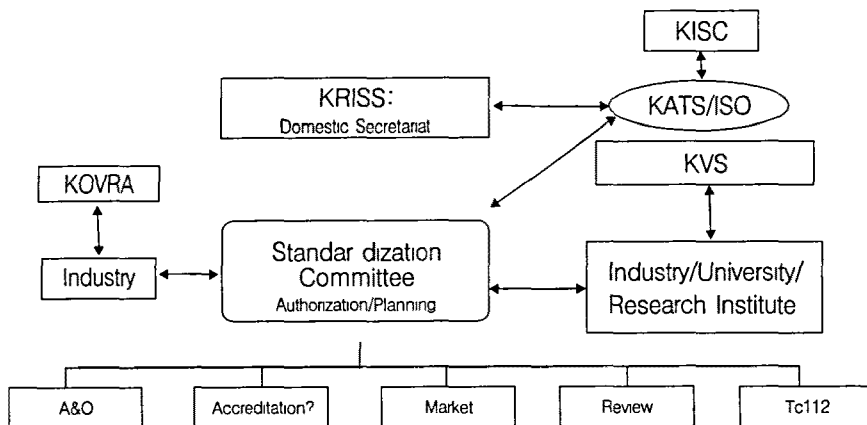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우리나라의 ISO/TC 112 표준화 제정 및 개정 관련 구성도